

서양철학의 이해

10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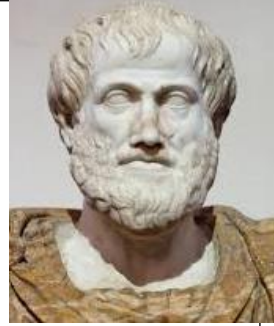


담당교수 홍 창 호

고대그리스철학1



IV. 고대그리스철학3-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384-BC322)



5.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특징

3)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 최초의 형식 논리학 완성(이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며 인식론 발전)

논리학의 체계: 개념론+판단론+추리론 - 이후 1000년 이상 강력한 논리학에 영향을 준다.

특히 인식론-즉 논리적 판단방법을 중시하였는데, 논리의 틀로써 삼단논법을 제시하였다.

★ 삼단논법(순수논리적 법칙을 찾아낸 것)- 연역법

1.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2.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1과 2를 전제라고 한다. 3은 1과 2의 주장에 따라 내려진 결론이다. 전제에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두 문장을 연결하는 개념이므로 매개개념이라고 한다. 이 인간이라는 매개개념은 결론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삼단논법에서 보면, 1과 2에서 3이 필연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1과 2가 참이면 3은 항상 참이 된다.

그러므로 전제들에 담겨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라면 결론으로 나타날 수 없다

논리의 시작은 '있는 것은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우에 따라 변하게 되는 논리를 거부하고 **용기있는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또한 **사회는 정의로워진다**.

IV. 고대그리스철학3-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384-BC322)

5.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특징

4) 개념론- 생각(이데아)의 최소단위

★ **10 범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방법으로 **10개의 범주**를 제시.

플라톤에서 이데아는 추상적인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세하게 개념으로 분류한다. '존재'는 10개 범주를 두고 가장 상위에 묶여진 개념이다. 우리가 존재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그것의 근원을 논리적으로 따진다. 이는 세계의 존재를 언어를 이용해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논리적인 낱말구조를 통해 대상이나 사태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그러므로 대상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준다.

10범주- 실체, 양, 질(상태), 관계, 장소, 시간, 자세, 소유, 능동, 수동- 낱말록 결합되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 사물의 속성을 파악하는 4가지 요소(원인)**

원인 종류	원인의 속성	사물(자동차바퀴)
질료인	사물이 그것으로 구성되는 질료를 그 사물의 원인으로 봄	자동차바퀴가 고무로 만들어졌다.
형상인	사물의 형상이 또한 그 사물의 사물됨의 원인으로 봄	자동차바퀴는 원형이다.
작용인	변화의 원천	자동차바퀴는 엔진의 힘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목적인	그 사물이 담고 있는 목적	자동차바퀴는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IV. 고대그리스철학3-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384-BC322)

5.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특징

5)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론 - 윤리학+ 정치론

(오늘날 개인과 사회를 구별하면서도 포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문제의 근원연구)

★ 윤리학: 행복론

- 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잘 산다는 것은? 인간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
- 그럼 인간고유기능은? 사유이다. 그러므로 사유하는 삶이 행복이다.

★ 정치학: 사회집단의 윤리학

- 올바른 국가사회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니코마코스의 윤리학(Ethica Nicomachea)- 가장 체계적인 윤리학 저서

전 10권으로 이루어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로써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윤리학 저서로 꼽힌다. 행복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상식에서 출발하는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들려준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삶의 궁극적 가치가 담겨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은 **행복**이며, **행복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수행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행복은 상대적이다. 하지만 진정 불변의 행복은 이성의 통찰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고 설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위한 실천적 덕으로 건강, 부유함, 자기발전을 위한 교육을 들고 있다.

IV. 고대그리스철학3-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384-BC322)

5.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특징

5)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론 - 윤리학+ 정치론

★ 중용(행복을 얻기 위한 태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결국 인생이란 이성의 현명함을 통해 최종 도달해야하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중용을 이야기한다.

중용은 일반적으로 더하거나 덜함이 없는 적당함을 취하는 행동의 지혜를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중용사상을 논한다. 그에 의하면 중용이란 양극단을 피하고 그 중간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용기는 비겁과 만용의 중간, 절제는 무감각과 방탕의 중간에 취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수치적인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끊임없는 자기극기와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

IV. 고대그리스철학3-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384-BC322)

5.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특징

5)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론 - 윤리학+ 정치론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훌륭한 성품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교육의 결과이다. 이점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한 사람이 잘 교육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발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은 정의로운 사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윤리와 정치의 긴밀성이 강조된다. 그는 사람은 본래 정치적 동물이며, 자신의 능력을 사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상적인 체제보다는 현실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왕이 철학자가 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익하지도 않다. 단지 왕은 철학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남녀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점에서 당시의 흐름을 넘지 못한 아쉬운 면을 남긴다.

IV. 고대그리스철학3-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384-BC322)

6. 플라톤의 이데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 비교

이데아 사상을 공유한다. 이러한 사상은 물질적인 것은 덧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존재 자체의 개념은 남는다는 소크라테스의 영혼불멸설에서 기원되었다.

- 나의 몸 일부가 사라져도 '나'는 '나'이다.(나의 영혼을 영원히 남아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들을 지향했고, 플라톤은 개별자들을 넘어서 '불변하는 것'을 추구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을 보자면 서양철학사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상의 철학자로 범위가 워낙 넓어 개략적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플라톤은 가치론/존재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론/존재론(논리학을 중심으로)을 중심의 철학을 전개한다.

"영혼에 관하여 De anima"에서 그는 영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며 일시적으로만 육체 속에 살 뿐이라는 플라톤의 견해를 배척했다. 그 대신 물질적 존재의 긍정적 가치를 더 강조하면서 영혼은 육체와 본질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생명의 원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플라톤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영혼을 육체의 형상(원본), 육체를 영혼의 질료**라고 정의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강렬한 자극을 받아 그의 사상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과는 대립하는 사상을 지닌다.



아테네 학당, 부분이미지

IV. 고대그리스철학3-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384-BC322)

6. 플라톤의 이데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 비교

★ 이데아IDEA 비교- 형상과 질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무엇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나 질료가 어떤 것이든 그 '형상'은 불변하는 하나다.	무엇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나 질료는 형상(Form), 모습(Shape), 조직(Organization)에 따라서 모두 달라진다.
- 이상적 - 원리적 - 추상적	- 실재적 - 현상적 - 자연과학적
<p>플라톤(불변하는 것, 영원한 것 추구- 이데아)</p> <p>- '꽃은 지지만 꽃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꽃은 덧없지만 매년 새해가 되면 그 꽃이 실현된다. 왜냐하면 꽃의 원형(Idea)는 존재하므로...</p> <p>반면 아리스토텔레스(현상에 따른 개별적인 실체 탐구)는 '꽃은 현재 눈에 보이는 개개의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p>	<p>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란?</p> <p>즉 물질적인 것은 덧없는 것으로 파악한 플라톤의 이데아사상을 받아들인다. 인간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어도 개념은 남는다(꽃)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데아(형상)는 사물(형태)의 '구조'이다.</p> <p>서양의 자연과학발달에 있어 근본동력은 아리스토텔레스다. 스승 소크라테스를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플라톤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치게 종교적이고 추상적이라고 플라톤을 비판했다.</p>

IV. 고대그리스철학3-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384-BC322)

7.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 비교

플라톤은 예술을 이데아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진리가 결여되고 욕망의 결과물로서 비이성적이기에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창조적 모방으로 이데아와 독자적인 위치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예술의 긍정론을 펼친다.

★ 예술이론의 특징 비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름다운 것 속에 아름다움 자체가 담겨있다고 말한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통점	예술은 현실의 모방(mimesis)이다.	
예술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	예술가의 창조적 모방
진리	진리와 떨어져 있는 가짜	역사보다 진리에 가깝다
감정	인간을 타락시킨다.	인간을 고양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작품이 현실을 모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술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면에서 예술가의 모방은 예술가의 직관적 통찰에 의해 이데아적 요소를 작품 속에 구현하는 것이다.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은 태양처럼 빛나는 노랑색을 과장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불타는 듯한 소중한 정열적 감정을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동화시킨 것이다. 또한 천경자 화백의 여성상은 자화상으로 그려내지만, 그 모방은 자신만의 깊은 사념의 순간의 모습을 외부로 드러내도록 하여 자신의 예술적 영감의 순간을 모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가는 대상이 가지는 본질, 즉 에이도스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IV. 고대그리스철학3-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384-BC322)

7.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 비교

★ 정화작용(Katharsis)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은 비극작품을 보면서 **카타르시스Katharsis**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카타르시스는 공포와 연민이라는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화란 비평용어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진정한 비극이 관객에게 전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다. 즉 비극은 관객이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끌어내고, 이런 감정들을 배설함으로써 쾌감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비극적인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극적 흥분과 갈등의 과정을 갖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정신적 긴장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감정이 굉장히 평온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비극적 상황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 때문일 수도 있고, 비극의 끝, 공포의 끝을 보고 난 후에 오는 해방감일수도 있다. 이처럼 비극을 보고 난 후에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한다.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한층 더 고양된다고 보았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카타르시스를 마음 속의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나 상처, 콤플렉스를 말이나 행위로 발산시켜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